

Daily Auto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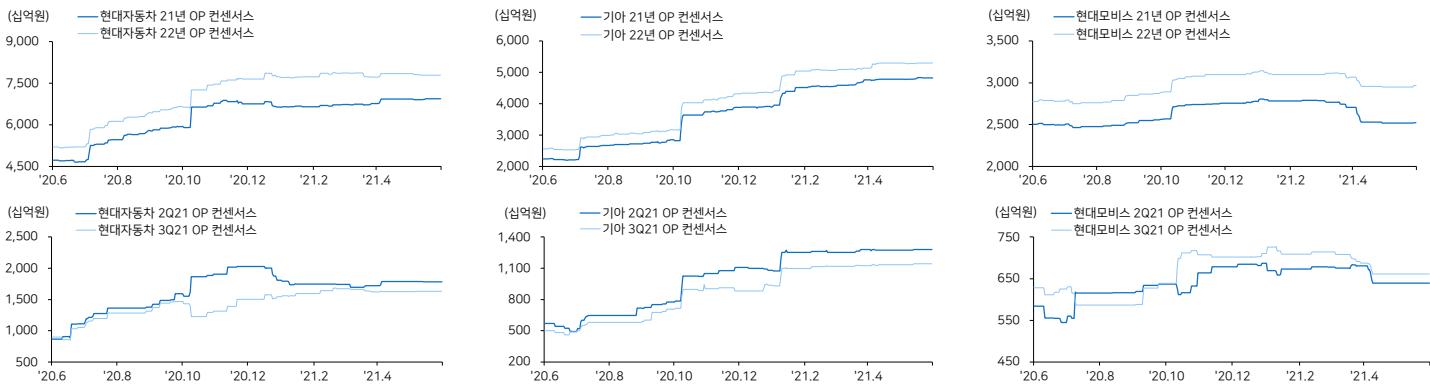
2021. 6. 25(F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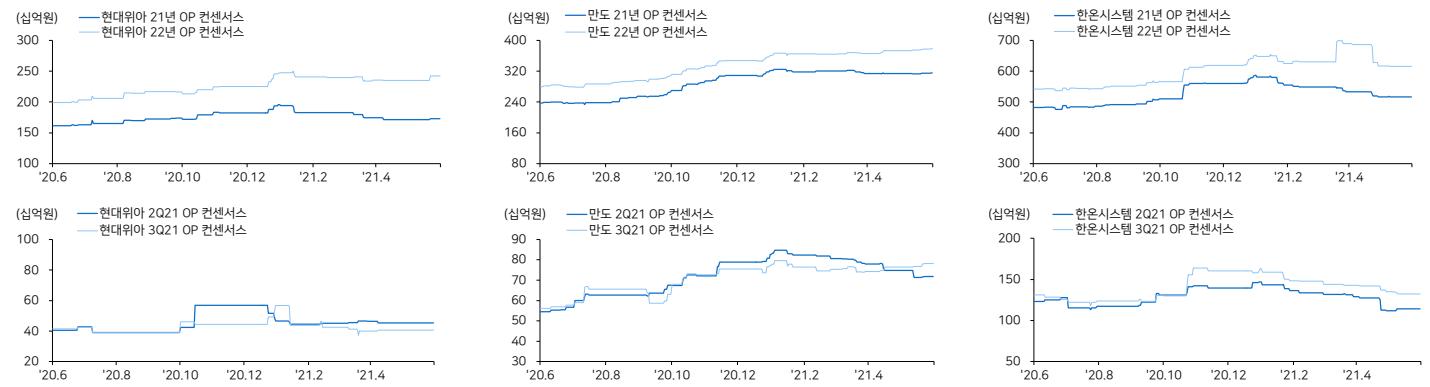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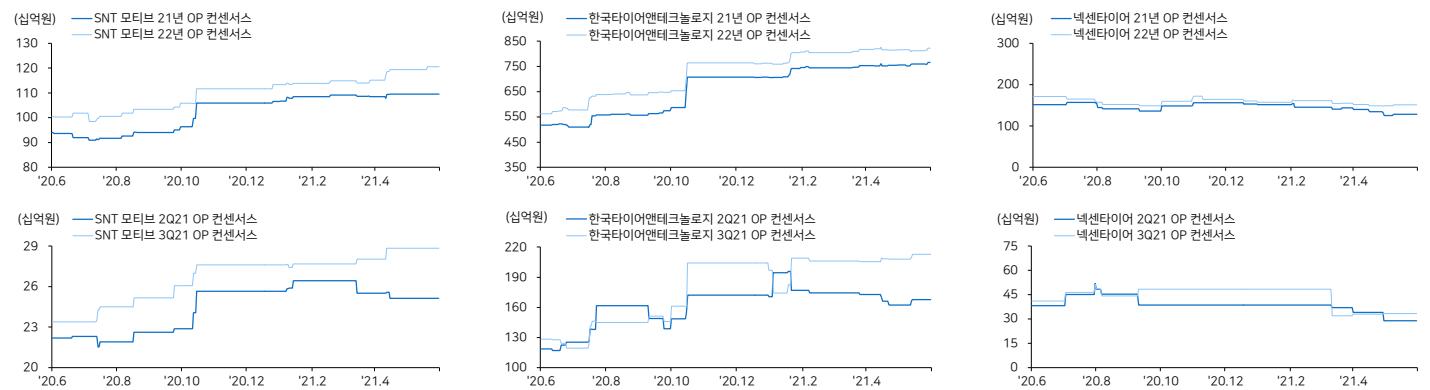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내년 인니 전기차 공장 본격화…R&D센터·변속기공장도 병행 (THE GURU)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공장 설립을 추진함. 또한 연구개발(R&D)센터와 변속기 등 부품공장 설립도 병행할 예정. 인도네시아를 동남아지역 전동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허브로 삼는다는 계획이 재확인됨.
<https://bit.ly/3amfyzW>

현대차·포티두단, '마카롱 택시' 품는다…모빌리티 서비스 채널 확보' (전자신문)

현대차그룹은 투자한 포티두단이 '마카롱 택시'(영어명 KST 모빌리티)를 인수함. 마카롱 택시를 수익성 사업체로 키우기보다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차량 데이터 확보나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 실행 채널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
<https://bit.ly/3wRwKcA>

"제기판+HUD"...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신개념 디스플레이 (한국경제)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기능을 통합한 '클러스터리스 HUD'를 세계 최초로 개발함. 이는 계기판에 표시하는 각종 주행정보를 HUD와 내비게이션·텔레커뮤니케이션(AVNT) 디스플레이로 분산시킴.
<https://bit.ly/3qkNkWe>

Tesla will make some Superchargers publicly available to other EVs in 2022 (Teslarati)

Tesla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있는 일부 충전소를 2022년 3분기에 다른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개방할 계획. 이는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충전 옵션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전기차 운전자 유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https://bit.ly/2UrUa0c>

현대차, 도심항공 사업 위해 英 ANRA '맞손'…'AAM 생태계 구축' (THE GURU)

현대차는 23일 영국 ANRA 테크놀로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최초로 AAM 운영을 위한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힘. ANRA 테크놀로지는 AAM 공역 관리 등 통합을 위해 운항기준(ConOps)에 맞춘 전략을 제공할 예정.
<https://bit.ly/2SnOKTj>

현대차·LG·삼성과 배터리 기술력자 커…노조 내재화 요구 거부 (데일리안)

현대자동차가 전기차용 배터리 내재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동조합 측에 밝힘. 기술이나 양산 능력 측면에서 기존 배터리 전문업체들과 격차가 큰 데다 '규모의 경제' 확보도 어려워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
<https://bit.ly/3vRRQg7>

U.S. Infrastructure deal would fund electric buses, charging stations (Reuters)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초당파 의원들이 전격 합의에 이른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에는 EV 리лей트가 포함되어 있지만 전기버스와 충전기를 위한 예산 150억 달러가 포함됨.
<https://reut.rs/3xWgptT>

"폭스콘, 내년 레벨4 자율주행 지원" (THE GURU)

폭스콘은 이르면 내년 Lv4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됨. 일본 자율주행 스타트업 티어(Tier) IV CTO는 '10월 폭스콘 전기차 플랫폼에 Lv2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하며, '22년에는 Lv 400 통합되어 한다'고 언급.
<https://bit.ly/3J7t04k>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